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출마 공식 선언

“탄핵 인용 전제 대선 경선 본격화 해야... 대통령 되면 개헌논의 추진”

안전처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시행



히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사무총장 명성의 정치지도자로서 어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반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분단갈등과 같은 과제를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염원 했지만 실망이 크다”고 비난했다.

특히 안 지사는 “그는 통일 염원에 대해 어떠한 것도 화답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북방 방문을 하지 않았고, 남북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유엔사무총장 때도 못한

역할을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받고 있는 만큼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안 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판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며 개헌이나 호헌이나 하는 것은 잘못된 지난 대선을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 했다.

안 지사는 “본인이 대통령 된다면 임기 내에 개헌논의 추진할 것이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의 구조를 구성해 국민들의 목소리 맞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가족간 감염’ 국내 첫 확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의 가족 간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SFTS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2차 감염 사례만 보고됐을 뿐 가족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거나 확인된 바 없었다.

이에 따라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SFTS 바이러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동안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는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2차 감염 사례만 보고됐지만 제주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연구팀이 처음으로 가족간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 그동안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는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2차 감염 사례만 보고됐지만 제주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연구팀이 처음으로 가족간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

이근화 제주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팀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 연구팀과 공동으로 2015년 6월 제주도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린 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남성(74)의 아내에 대한 유전자와 혈청 검사를 시행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열대의학·위생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ASIMH) 최근호에 발표했다.

또, 유전자 검사에서는 숨진 남편의 것과 동일한 계통의 SFTS 바이러스도 분리됐다.

이근화 교수는 “SFTS 바이러스의 가족 간 감염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지만, 세계적으로는 2012-2013년 사이 중국에서 3건의 가족 간 2차 감염이 보고된 적이 있다”면서 “중국과 한국 사례를 볼 때 SFTS는 의료인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 주변인 등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야생진드기 의심환자를 대할 때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재난현장 통신두절 대비 범정부 협업체제 강화

재난이 일어나 통신두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통신수단을 사용해 지원하는 훈련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은 지진 등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화 폭주나 접속장애 등 통신두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TRS 단말기, 업무용 무선

기, 위성전화기, 비상발전기 등 1만 3000여점의 긴급통신수단이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올해 관리계획에는 재난관련기관 보유 업무용 무선기, PS-LTE 자원 및 아마추어무선행 등 다양한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평시에도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재난의 규모·형태별 표준 훈련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에 통신두절 상

황을 가정해 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 안전처는 통합지휘부선통신망(TRS)을 이용해 중앙, 시·군과 소독현장 등 세 곳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24시간 내 실제 구축했다.

훈련 결과를 반영해 재난발생에 따른 통신두절 시 긴급통신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경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긴급통신수단 지원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재난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사드 배치, 반대·차기정부 52% vs 조기 배치 34%

리얼미터 조사결과

최근 정부가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기 배치’ 응답이 33.8%, ‘배치 반대’가 26.7%, ‘차기정부가 배치 여부 결정’이 24.8%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4.7%.

정부의 추진 계획과 다르게, 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에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1.5%로 집계되어, 향후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7월 13일에 실시된 ‘사드 배치 찬반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이 44.2%, 반대 응답이 38.6%로 집계된 바 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가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정의당 지지층(조기배치 12.4% vs 배치반대·차기정부 87.6%)과 민주당 지지층(9.4% vs 79.9%), 국민의당 지지층(27.6% vs 69.2%)에서는 절대 다수가 ‘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조기배치 67.4% vs 배치반대·차기정부 18.6%)과 무당층(44.2% vs 26.9%)에서는 ‘조기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2월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50%), 무선(35%), 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유선전화(15%) 병행 무작위생성·자세 구축 표집법, 임의 전화 걸기 및 스마트폰 앱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6.5%(총 통화 3057명 중 505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정복기자

2017 희망찬 새해를

“152만 대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청년 취·창업
 - 청년취업지원사업
 - 청년취업패스
- 도시재생
 - 옛도심서 활성화 본격화
 - 중앙로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사업
- 안전한 도시
 - 문자·영상·이동통신
 - 스마트 안전망 확대
- 대중교통 혁신
 - 대중교통 혁신-승인
 - 충청권광역철도 착수(77개)

대전광역시

[리얼미터] 반기문23.5% >문재인23% >이재명11.2%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정당후보 6자구도, 문 전 대표 1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해 마지막주(12월26~30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빙의 차로 1,2위를 다투고 정당후보 6명이 겨루는 6자구도에서는 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매일경제 '레이더' 의뢰로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주 12월 3주차 대비 0.2%p 소폭 오른 23.5%를 기록하며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 초박빙 1위 자리를 지켰다. 문재인 전 대표는 0.1%p 내리며 황보, 23.0%로 반 전 총장에 비해 0.5%p 격차로 낮은 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p 내린 11.2%로 3주 연속 하락했으나 6주 연속 3위를 유지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0.7%p 내린 7.5%로 2015년 11월 3주차(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로 4위에 머물렀다. 다음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주 대비 0.7%p 내

린 4.2%로 5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3%p 오른 4.1%로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와 동률인 3.9%로 한 계단 내려섰고 손학규 전 의원 역시 지난주와 동률인 3.5%,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2.4%,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1.6%, 남경필 경기지사 1.2%, 홍준표 경남지사 0.9%, 원희룡 제주지사 0.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p 증가한 122%

반 전 총장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 탈락한 후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추진을 선언하고 본인이 '개헌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주 초중반에는 상승했으나, '신천지 연루 의혹'과 '23번돌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가 급증했던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총청권과 PK(부산·경남·울산), 경기·인천, 50대 이상, 무당층에서는 오를 반면, TK(대구·경북)과 서울, 호남, 40대 이하, 정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PK와 경기·인천, 40대와 50대, 무당층, 보수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서울, 호남, 30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지지층, 중도층과 중도보수층에서는 상승했고, 호남(文 29.7%, 安 15.8%, 李 11.9%)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격차를 벌리며 1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수도권과 충청권, TK, 30대 이하와 60대 이상,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내린 반면, 호남, 40대와 50대에서는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는 주로 TK와 호남, 충청권, 20대와 40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과 중도보수층, 보수층에서 하락했고, 호남(文 29.7%, 安 15.8%, 李 11.9%)에서는 14주 연속 문재인 전 대표에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당 후보별 가상대결' 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9%로, 2위 반기문 무소속 후보(21.3%)에 오차범위(±

2.9%p) 밖에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황교안 새누리당 후보가 9.0%로, 4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8.8%)를 초박빙의 격차로 앞섰고, 5위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후보가 4.9%, 6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2%로 집계됐다. '없음/잘모름'은 25.9%.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는 지난해 26~30일(금까지 5일간 전국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8%), 스마트폰 앱(49%), 무선(18%)·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2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차기대선 6자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는 27~28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14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61%), 무선(23%)·유선(16%)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새해맞이 현충원 단체 참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신년 맞이 현충원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는 박병계 더민주대전시당위원장(대전 서구),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 강래구 동구 지역위원장, 송행수 중구 지역위원장, 김명경 대덕구 지역위원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당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가칭 신당 4당 원내대표에 의해 신선택된 이상민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에 선정됐다.

개헌특위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가칭 신당 4당 원내대표에 의해 신선택된 이상민 의원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개헌을 목표로 이주영, 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각 선진국의 헌법 비교,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을 망라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개헌을 추진해왔다.

이상민 의원은 "최대 정쟁인 정부형태에 대해 '독일형 의원내각제' 또는 '오스트리아형 분권형 정부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헌 특위 위원으로서 정부형태에 대한 개정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 현대적 인권 의 보장과 신장, 복과점 경제구조의 대한 경제적 민주화 구현은 물론 지방자치,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헌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 현충원 참배 및 사무식
국민의당 대전시당은 2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선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신명식 대전시당위원장과 유배근 중구지역위원장, 고무열 유성갑지역위원장, 신현관 유성을지역위원장, 심현보 동구회의위원 및 대전시당 주요 당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참배 후 방명록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는 글로 정유년 새해의 의지를 다졌다.

"신차 구입후 1년내 증대 결합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정용기의원, 새해 1호와 2호 법안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국회의원이 2017년도 새해 1호와 2호 법안으로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킬로 초과한 경우 이 기간 지난 것으로 본

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하였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할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

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뒤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2017년 사무식...새해 의정활동 각오 다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은 2일 오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김원식 부의장 등 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사무식을 갖고 정유년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2대 세종시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한 뜻 깊은 한 해였다"면서 "올해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로 정쟁의 혼란속에서 세종시 정상건설과 국회분원 이전 등 지역현안의 해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의회, 시민행복을 위한 민생의회, 소통하는 민주주의화라는 새로운 기치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정복기자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직 윤리 종합 정보 시스템(www.pe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이 해당 시스템에서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9~20일 서울·대전·세종·대전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 및 신고서 작성방법, 빈번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방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지국장은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라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김태성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금액이 저액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리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덕구의회, 2017년 신년화두 "여시구진(與時俱進)"



대전시 대덕구의회의장 박종래는 2일 분회의장에서 사무식을 갖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발전하자'는 뜻의 '여시구진(與時俱進)'을 2017년 신년화두로 정했다.

"여시구진(與時俱進) 중국의 채완배가 만든 말로, 당시 서구열강들에게 시달리는 중국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그런 집국에서 벗어

나기 위한 정신 자세를 제시한 것으로 '서양 학문을 적극 배워 시대 흐름에 맞춰 전진하자'는 뜻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개과 불린(改過不悛)을 화두로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 문화를 만들었고, 2016년에는 대화합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이루겠다는 '태화위정(太和爲政)'을 화두로 정하여 모범된(분열과 갈등이 없는) 의회화합을 보여주었다.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은 정유년인 올해도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덕구 발전을 위해 "여시구진"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환기자

새누리당 대전시당, 현충원서 무릎 꿇고 사죄참배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은권은 2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하는 등 신년교례회를 갖고, "당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단합하는 모습으로 겸허하게 시민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8시 당원과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최근 발생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마음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국영령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무릎 꿇은 참배를 했다.

이은권 시장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2017년 정유년 새해,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며 새해 출발 각오를 다졌다.

식당에서 가진 신년교례회에서 이은권 시장위원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다. 저는 새누리당의 당직자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희망찬 새해와 함께 다시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직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국민에 신뢰받는 새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은권 시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장우 최고위원, 이재선 서구을당협위원장, 이영규 서구갑 당협위원장, 진동규 유성구갑 당협위원장, 박성호 전 대전시장, 육동일 정책자문위원장, 박희조 사무처장, 윤진근 시의회 원내대표, 설장수 기초의원협의회장, 박선용 동구의회 의장, 조상환 고문단회장, 김옥향 여성위원장 등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복기자

“희망차고 역동적 군정 수행”

박동철 금산군수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기운으로 비상하는 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희망차고 역동적인 군정 수행을 펼치겠습니다.

이들위해 첫째,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개최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금산인삼·약초의 세계화·명품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고 잠자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조성으로 군민 생활의 질을 높여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한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건강 복지 구현과 저출산 극복으로 행복한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문화 지원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정유년 새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민선6기를 실질적 마무리하는 시기로 새로운 국정방향을 군정에 접목해야 하는 등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군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더 멀리, 더 높게, 더 넓게 생각하여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금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안 문제 군민과 함께 풀어나갈터”

노박래 서천군수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큰 성취와 보람을 안겨줄 2017년이 열렸습니다.

丁酉年(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정유년은 瑞氣(서기) 충만한 붉은 닭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혼돈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밝은 새벽을 여는 닭 울음처럼,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욱 활기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천군도 더 크게 발전하고 힘차게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衷心(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원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650여 공직자와 더불어 誠心(성심)을 다함은 물론, 더 고뇌하고 땀을 흘리며 일관케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현안 문제는 군민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군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우리 고장 서천이 더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귀중한 새해 첫날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2017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시민은 단란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릇되고 낡은 것들은 버리고 좋은 일을 바라면서 굳센 악수로 희망의 새해 인사를 나누시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와 함께 기회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지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 앞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걱정을 이야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께 새해의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의가 감돌 처벌 흐르는 나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분권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 시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더욱 반듯하게 청정의 민심을 받들면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살리는데 150만 시민과 함께 새해의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해결 · 군민 복리증진 기여”

이영희태안군의회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고 음기를 쫓아 양기를 불러오는 것과 같이 올 한해 희망찬 새해의 울음과 함께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오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군민의 뜻을 실현하는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의안의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철저한 심의를 통한 법정회기의 효율적 운영으로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기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역량 증진으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의 효과성, 진척도 등을 점검,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의 날을 적극 활용하여 진정·건의·청원 사항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태안군의회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 만큼 새해에는 새 희망을 가득 품고 힘차게 시작하여 도약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가정과 일터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소통과 공감 행복 교육 실현”

김일규 충남새산계통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논산계통의 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7 정유년(丁酉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2017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논산계통 교육가족 여러분 우렁찬 닭의 울음으로 새벽이 밝아 오름 알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내일의 시작,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태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 논산계통교육지원청은 “소통과 공감 행복+ 논산계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지자체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놀이시간 확보와 안전한 놀이공간 및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뒤쳐져 있는 맞춤형 책임교육체제 구축과 융합사고를 돕는 창의교육, 지역 유관 기관과 MOU체결로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논산계통교육지원청은 교육가족과 상호 협동하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성장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함께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화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논산계통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허브 대학정착”

강성모 KAIST 총장



친애하는 KAIST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태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믿음을 받고 있는 우리 KAIST가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총장으로 부임하며 Quantum Jump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기(2013-14)에는 ‘하나된 KAIST’를 만들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후반기(2015-16)에는 ‘질적성장을 통해 혁신하는 KAIST’를 만들어 크게 도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Students-Centered, Faculty-Driven, World’s Most Innovative Research University’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학교는 대전시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 유성구청, 충남대학교 등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대학교와 우리학교 사이에 위치한 담을 허물고 열린길을 만들었고, 카이스트교를 개통하여 대전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은 우리 KAIST 가족 여러분의 모든 꿈이 실현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허브(hub)’이자 ‘Students-Centered, Faculty-Driven World’s Best Research University’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익·복지 향상 현장의정 주력”

박종래 대덕구의회의장



존경하는 19만여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행과 결단의 지혜’를 상징하는 닭띠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감내하기 힘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과 울분, 국가안위가 걱정스러운 숨죽인 시간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움과 국민적 지력으로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건강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대덕구의회는 늘 구민 곁에서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의정에 주력하면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정책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구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좋은 대덕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빠르게 가기보다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멀리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정립”

전종환 천안시의회의장



사랑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이제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닭은 우리 인간과 매우 친숙한 동물로 어둠이 끝나고 밝은 빛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어 만물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천안시가 2017년 새해에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개인의 삶이나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오히려 승화시켜 전 세계가 놀라는 시민혁명을 만들었고 2016년을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여러분!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으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사하여 천안시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는 작년부터 꾸준히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게 되고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의회의 투명성을 높여 왔으며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아있는 천안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선도적인 의회, 혁신적인 의회, 가치있는 의회, 윤리적인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1월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1. 사업개요
10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재해예방 위해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기초안전지원을 수행하고, 위험요인, 안전관리수칙, 전과목 재해예방 안전교육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창출

2. 사업대상 : 서비스업 및 운수장외교통업 1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7대 업종(음식서비스업, 숙박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서비스업, 운수장외교통업, 운수서비스업, 서비스업, 운수장외교통업)

3. 신청자격 :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 기관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 종교,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연령, 종교 및 단체

4. 신청기간 : 2017.1.4(수) ~ 2017.1.13(금) (10일 18:00)

5. 신청방법
공모 참여신청서(1부), 제안서 10부를 공모기간 내 공단본부 지역본부 서비스업 담당부서에 제출

6.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1.15(예상) / 계약체결일 ~ 2017.12.31
□ 사업예산 : 150,000개소

구분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충주지역	대전지역	대전지역
사업 예산	44,000	23,000	19,500	42,500	15,500	15,500
추진사업 (개소)	607.2 (18.5)	317.4 (9.7)	269.1 (8.2)	596.5 (17.9)	213.9 (6.5)	213.9 (6.5)
수행 지역	서울, 2회	부산, 울산, 경남, 1회	대구, 경북, 1회	충주, 경북, 1회	대전, 1회	대전, 1회
문의처	02-671-4001	051-501-054	052-249-6705	053-501-073	052-631-054	042-620-088

※ 신청서를 신청일자 및 마감일에 따라 차등비용을 지음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 정 ●

2017 교육계 신년교례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3일 오후 3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주간업무회의



박용갑 대구청장= 3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에 참석.

확대간부회의



장중대 서구청장= 3일 오후 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시장과구청장의 신년인사



박수범 대덕구청장= 3일 오후 1시 30분 대전광역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시장과 구청장의 신년인사에 참석.

말기암 환자 대상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시행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다수의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는 요구에 맞추어 새해 1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진분가가 팀을 이루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 가정 호스피스는 총대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동 호스피스보다 경제적이고 웰 다잉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충남대병원에서 간호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에 인력을 추가하여(완화의료전문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급 1명) 통증 조절 등 의료서비스, 심리·영적 서비스, 가족 교육과 돌봄까지 실질적인 호스피스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병동 호스피스는 현재 대전에 45 병상이 있고, 2015년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수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병상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병동 호스피스 보다 낮게 책정되어 현재 대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충남대병원만 참여를 하고 있다.

회생가능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특색한 한국 문화 때문에 환자 고통과 병원비가 증가하고, 암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재가 환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동 호스피스 이용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이 평균 60만원~80만원인데 반해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달 8회 방문기준 5만원 정도로 경제적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장 편안한 본인의 집에서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 정유년 첫날 핵심 현안사업 챙기기 행보

“엑스포 감동 재현 미래 성장동력 확보”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유년 새해 시무식 직후 대전의료원 예정지와 엑스포 재창조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2017년도 현안 사업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시장은 현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협의 및 관계기관 설명 등을 체계적으로 촘촘히 챙겨 누수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대상사업

선정 시 예타 조사 및 통과 등의 행정절차가 과제로 남아 있다.

권 시장은 "대전의료원 설립은 민선6기의 약속사업이자 대전시민들의 숙원인 대전형 공공의료원의 모태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첫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엑스포과학공원 59만 2,494㎡ 부지에 국제사업인 HD드라마타운과 기초과학연구원, 민간투자사업인 사이언스 콤플렉스, 대전시 역점사업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에는 국비 5,590억 원(44.3%), 시비 942억 원(7.5%), 민자 6,078억 원(48.2%) 등 총 1조2,610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 비

즈니스, 문화·여가 생활이 윈스 톱으로 이뤄지는 중부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시장은 "2017년은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착공되고, 기초과학연구원 및 HD드라마타운이 준공되는 등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해"라고 강조하고 "엑스포 과학공원을 1993 엑스포의 감동을 재현할 수 있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교통영향평가 실시로 연193억원 예산 절감

시, 불법주정차방지·보행교통환경 개선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16년 한 해 동안 35건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약 193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시민교통편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개발사업 4건, 건축물 31건으로서 193억 원은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대한 교통유발인자 부담의 원칙을 전제로 주변지역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한 연간시간절감효과와 도로, 주차장 및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계량화하여 비용으로 환

산했다.

교통영향평가 성과분석에 따르면 도로set-back을 통한 완화차로 확보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등으로 교통혼잡을 완화시켰고, 적정한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변 불법주정차방지 및 보행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에서는 교통혼잡 완화, 진입입 동선체계개선, 주차장 확충 등 시민 교통편의에 우선을

두면서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영향평가는 규제의 제도가 아닌 공공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영호 기자



동구, 2017 협치행정 구현 각오와 결의 다져

상위동행 기조 바탕으로

대전 동구청장 한현택은 2일, 구청 공연장에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2017년 시무식' 행사를 열고 새해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지난해 거둔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의 뜻깊고 희망찬 한 해를 상위동행(相慰同行)의 기조를 바탕으로 750여 공직자와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전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삶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복지 특화도시 실현, 내년까지 풍요로워지는 문화·체육·관광·교육도시 창조, 참여

와 소통을 통한 구민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 등 새해 구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년사에 이어 공직자들은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올해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정진(精進)할 것을 다짐하며 힘차게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시무식 종료 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올해도 열심히 발로 뛰고 주민요구에 응답하는 협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영호 기자

서구 2017년 시무식 가져

“신이성지 바탕 구정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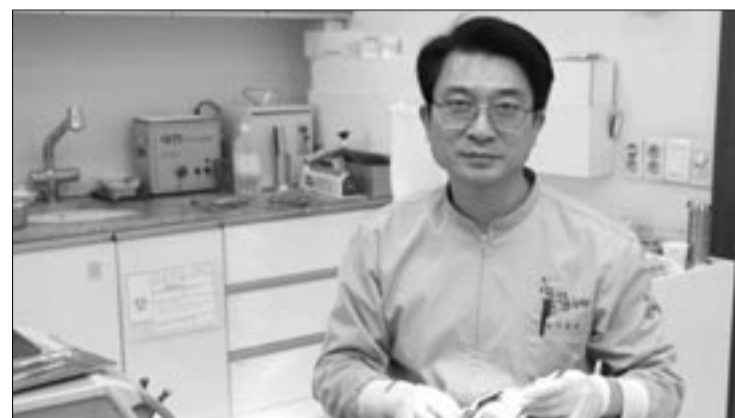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시작 2017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희망을 내다봤다. 이번 시무식은 장종태 구청장과 직원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한 '신이성지(信以成之)'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을)완성한다]의 자세로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취지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행사는 서구소리새합창단 공연, 팟시루떡 커팅식, 구청장 신년사에 이어 구청 야외광장에서 '소원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구정 목표인 '행복 서구'를 힘차게 외치자, 올해의 소망이 담긴 희망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새해 구정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장종태 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민선 6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로, 행복 구정을 위해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반드시 지켜나간다는 자세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서구 탄방동 소재 아름다운치과

소외계층 아동 정기치과진료

서구 탄방동에 소재하는 아름다운치과(원장 민홍규, 사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 (www.childfund-daejeon.or.kr) 관장 유 미과 업무협약을 통해 2006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1회 소외계층아이를 위한 재능기부 및 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 아동들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덕구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아검진 및 예방치료, 충치치료를 진행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아이들은 평소 사회복지사 담당자들과 내원하기도 하며 일정상 어려운 친구들은 보호자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모들에게 필요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

민홍규 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치아관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부모의 마음으로 꾸준히 의료 재능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치과는 연말연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가 펼치고 있는 '365 초록우산 산타를 찾습니다' 캠페인에도 동참해 우리 대전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롯데케미칼(주)연구소,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 롯데케미칼(주)연구소(소장 이동우)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롯데케미칼(주)연구소에서 진행한 '2016년 하반기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에서 예비 대학생 2명을 선정, 입학금 전액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2월 6일부터 1인이상 사업체 1만5275개 대상 조사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은 오는 10일까지 정부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 위한 조사요원 4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는 2016년 12월말 기준, 종사자 1인이상인 15,27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조사원의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체 조사 등 통계조

사유경험자를 우대 채용한다. 사업체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접수기간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yaasu@korea.kr), 팩스(606-612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신청지중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에 오는 13일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공보실(606-615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유능하고 성실한 주민들의 많은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추운 날씨에 직원들이 거리에 나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주민을 섬기며 열심을 다 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다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응원의 기운도 받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650여 대덕구 공

직들은 통합과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며 2017년에는 민선 6기에 이뤄놓은 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며,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성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1층

2017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확정

논산시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2017~2020년 총 4년간 55억원 투자

논산의 강소 농업지역인 성동면의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결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돼 국비 38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성동면은 지난해 2월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성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명철) 구성, 현장포럼, 소규모사업 등 공모 준비는 물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노력해왔다. 또, 사업계획 수립 후 지역발전 전문가와 수개월동안 사업계획 수정·보완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55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확충을 비롯 지역경관개선,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투자될 계획이다.

이번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희망마을건설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성동면 어울림센터 조성 ▲중앙가로환경 정비 ▲중앙공원 조성 등이며 이번사업이 시행되면 정주여건 및 환경개선 등으로 성동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성동면장은 "이번 사업 확정으로 농촌마을을 활성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면의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번 사업으로 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전우체국, 2017년 무사고 안전기원 발대식 열려
서대전우체국(국장 이계승)은 2일 丁酉년 새해를 맞아 무사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2017년 집배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집배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신속·정확한 우편 배달로 우편소통품질경영 최우수국 달성을 다짐하는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사고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했다.



온양제일호텔, 희망나눔 캠페인 성공 기탁
온양제일호텔(대표 한형수)은 지난 12월 30일 '희망2017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온양2동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평원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를 개선한다.

청구오류 안내 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발생 시 반송코드 및 사유를 요양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반송 사유가 세분화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000만건(16년도 11월말 기준) 발생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점검

전국 406개 철도건설현장 하도급대금·임금 등 정상지급 여부 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중소기업·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406개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6일까지 한 주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해 최종 근로자 개개인

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설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기성대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 '체불예로시스템(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업체가 대금을 신청해야 할 경우 우대공리를 적용받게 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동반성장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기자

한국양곡가공협회 아산시지부 이웃사랑 쌀 전달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아산시지부(지부장 박주표)는 지난 12월 30일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를 방문해 어

이런 쌀 기탁은 양곡협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도정업체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직접 도정한 쌀을 심시일반 자선 참여해 뜻깊은 일을 하게 됐다.

전달된 쌀은 관내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 여성장애인보호시설에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주표 지부장은 "회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필 소장은 "농업분야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에 참여하시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에 '칭찬' 합시다

'2017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실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350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포상으로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의 주요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통해 시상해 왔다.

이번 포상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육성공로자 및 우수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포상종류로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

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 및 유통·서비스),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 게시된 '포상 추천요령'의 서식을 작성, 제시된 증빙서류를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포상전담팀) 및 지역본부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다만, 국제 및 지방세 체납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의 경우 5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정 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謹賀新年

"수출 성공 파트너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KITA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이상일

대전대학교, 2017년 시무식 행사 “도내 시공간 이동 고속도로 이용률 가장 높아”

대학의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 발표하는 시간 가져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2일 대학 30주년기념관 하나컨벤션홀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용철 총장을 비롯, 대전대 전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무식에는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대학의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산학협력 발전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

한 대학의 목표를 전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신년사에 나선 임용철 총장은 "대전대학교는 2017년에도 세계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에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며 "우리는 올바른 고분명한 목표를 통해 뿌리 깊은 미래와 미래대학의 새로운 표준이 대전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도시지역 환경개선 위한 빈집 정비

아산시, 도시주거환경 저해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위해 추진

아산시가 2017년도 도시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추진에 나선다.

이는 최근 도심 내 장기간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 이로 인한 악취, 청소년 비행장소, 각종 범죄 및 화재 발생우려 등 도시주거환경 저해와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산시는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불량 청소년들의 각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도시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지

원은 월거비 전역을 무상 지원해 주고 3년 간 주차장, 썬더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빈 사업을 신청·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 건축과 ☎041-540-2152에 문의하면 되고,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빈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의 주거환경과 경관이 개선됨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대 2017 시무식 “개교 90주년 역사와 전통 계승”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일 오전 9시30분 국립대전충청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새해를 시작했다.

충남연구원, 충남도로 현황과 시사점·인포그래픽 발표

충남지역 도로연장이 광역도 단위 9개 지자체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낮아 도로연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토계수(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기준지표)당 도로연장'을 비교해 본 결과 경기도가 1.1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충남 1.67, 경북 1.7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

청권에서는 세종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충남(1.67), 충북(1.94), 대전(2.2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1.99다.

충남연구원은 2일 발표한 '충청남도 도로 현황과 시사점' 인포그래픽에서 전국 9개 광역도 단위 지자체 중 충남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3위)이지만 군도(8

위), 지방도(7위), 국도(5위)의 도로연장은 저조했다며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내 시·군간 이동시 고속도로 이용률은 37%로 국도 26%, 지방도 25%, 시·군도 1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은 "도내에는 지방도 이용률이 높은 청양(43%), 홍성(37%), 아산(36%), 금산(32%) 등은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국 도로망 구축과 지역 접근성, 통행속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지역 농업 대도약으로 넘버원 청양을 열거하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농업 대도약! 넘버원 청양'을 만들기 위해 영농현장 중심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공직자 청렴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군정역점 시책인 인구증가와 부가소득 창출을 위한 청년농민 육성을 위해 영농현장 중심 찾아가는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 만족시대 열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우량종자은행 운영, 젊은 영농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고급농산물 생산과 비용 절감,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 귀농귀촌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6차산업 기반조성 등 영농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역점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미생물제제 생산 공급, 농업인 인프라 구축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기후순응농업에 대응하는 특산 소득작목 발굴보급, 품질고급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등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특허청, 올해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공고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 지원

특허청은 2일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올해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전국의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서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IP 기업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에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70개 기업을 지원한다.

과거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해외 지식재산 지원 위주로 재편한 것으로 250개 기업을 신규로 선발한다. 기존의 IP 스타기업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위가 승계된다.

'IP 글로벌 기업'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현장심사-대면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IP 경영지원단,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맞춤형 IP 맵 작성 및 비영리권 브랜드 개발' 등 연간 7000만 원, 3년간 총 2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및 수출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즉시 해소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기업 신청 절차는 없으며 IP 경영지원단이 직접 또는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약 1300개 중소기업에 IP 컨설팅 및 수시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면 특별한 제약 없이 2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 기업에게는 공통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IP 현안보고

“전기 자극만으로 연골재생 유도하는 기술 개발”

울지대 권혁준 교수, 저비용으로 대량의 연골세포치로제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만으로 연골세포(생화학)를 유도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울지대학교(총장 조우원) 물리치료학과 권혁준 교수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과 천홍구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외부의 성장인자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자극만으로 연골세포를 유도하는 기술을 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2월 22일자에 게재했다.

연골이 많아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현재 약물이나 물리치료, 수술치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수술적 치료 또한 연골조직을 원래상태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인공관절은 마모로 인해 사용수명 제한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의 근본적 치료는 손상된 연골조직을 재생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줄기세포나 연골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성장인자를 투여해 연골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생체 내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권 교수는 유전자조작이나 외부의 성장인자 투입 없이 전기 자극만으로 연골세포의 연골세포를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실험을 통해 쥐의 골수에서 추출한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접시에서 배양하면서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 2012년 권 교수가 생체 내 에너지자신호 전달 물질인 ATP(adenosine

triphosphate·아데노신삼인산)와 칼슘 농도가 일정한 주기의 리듬을 나타내면서 연골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실험에서는 전기 자극만을 이용하여 줄기세포에 ATP 리듬과 칼슘 리듬을 유도하였을 때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권 교수는 "전기 자극 기반의 연골재생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저비용, 고효율로 연골세포를 대량생산할 수 있고, 연골세포를 위한 새로운 전기치료기구의 개발을 통해 미래 물리치료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고령 환자에게 저렴한 안전한 연골재생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이영호기자

daejeontoday.com

독립기념관, 교양서 시리즈 발간

“근대 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병탄했나”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가 2014년도부터 기획·발간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다룬 교양서 시리즈의 제3집으로 '근대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병탄했나?'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2014년도에 제1집 '일본근대의 보도관화는 한국사를 어떻게 왜곡했나?', 2015년도에 제2집 '일본군 '위안부' 알고 있나요?'에 이어 올해는 일제의 한국강제병합의 불법성을 논증한 '근대일본은 한국을 어떻게 병탄했나?'를 발간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는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국내에

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문제를 주제별로 엮어 국내와 일본에 직접 배포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책의 집필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와 한철호 교수가 맡았고 번역은 일본 고도모교이쿠호센(こともと教青寶仙)대학교의 사노 미치오(佐藤通夫) 교수가, 감수 및 도판자료 정리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맡았다.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제병합은 한국인에게 전무후무한 치욕스러운 사건이며 일본의 한국침략의 결정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우익은 침략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오히려 미개한 한국을 문명화해 이끌었으며 1910년 당시 양식 있는 한국인은 일본의 지배를 환영했다고 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한철호 교수는 이 책에서 그동안 한국역사학계가 일본 우익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일일이 상대할 기력이 없었다고 일부러 무시해온 경향이 있었지만 일본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도 한국근대사연구자의 과제라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2017년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1월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 사업개요**
10인 미만 서비스분야 사업장의 재해예방 유망사업유형에 중점으로 한 기초안전지원을 수행하고, 위험성이 큰 서비스업종에 대한 안전교육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창출
- 사업대상** : 서비스업 및 운수업고용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위험도가 높은 7대 업종을 포함하여 사업대상 선정
* 7대업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및서비스제공업, 음식및숙박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고용노동
- 신청자격** :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 기관
* 비영리기관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재원, 신고, 인증 포함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 신청기간** : 2017.1.4(수) ~ 2017.1.13(금) (10일간) 18:00
- 신청방법**
공모 참여신청서 1부, 제안서 10부등 공모기간 내 공모본부 지역본부 서비스분야 담당부서에 제출
- 제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1.15(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2.31)
□ 사업예산 : 100,000(천원) (단위: 천원, 백만원)

구분	서울지역	부산지역	경주지역	대구지역	대전지역
사업예산	44,000	28,000	19,500	42,500	15,500
위탁수수료 (성자금)	607.2 (18.9)	317.4 (9.7)	269.1 (8.2)	595.5 (17.9)	213.9 (6.5)
수행지역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경주, 경북, 경남, 제주	안동,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충북, 충남
문의처	02-0711-2801	02-930-0941	03-988-8225	03-650-0353	03-659-0354

* 성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0~50%) 지급

7. 수행업체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공모 시 제출한 제안서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선정기준은 제안요청서와 요구사항 충족도, 사업수행 능력평가, 수행계획의 적절성, 품질관리력,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 제출된 공모신청서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갤러리아, 2017년 새해 아트 입은 새로운 고객맞이

한화갤러리아(대표이사 황용득)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주디스 반 덴 후크(Judith Van Den Hoek)'와 협업을 진행, 2월1일부터 2017년 새해 새로운 디자인의 쇼핑백을 선보인다.

환경부, 3개 자동차 수입사 서류 위조 최종 확정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71억 7,000만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 대상의 위조를 최종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안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형차량인 X5M 조건으로 심렸고, 한국법인인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

작으로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1월 2일 7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시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1월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 1개 차종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임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여소방서, 겨울철 산행

안전수칙 준수 당부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겨울철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조난 및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무리한 산행 자제와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산행은 낙상이나 골절 등 각종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 없이 산행하는 자칫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 산악사고의 주요원인은 계절적으로 해가 빨리 지는 데다 눈이 쌓였을 경우 하산하는 데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겨울철 산행을 위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예비배터리, 휴대용 랜턴, 비상식량 등 준비 철저 ▲초보자의 경우 지리에 능통한 전문가와 동행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대비해 수시로 일기예보 확인 ▲아이젠, 방한점퍼 등 계절용 산악장비 구비 등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태선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는 2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정유년 새해 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추진과 직원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무식행사를 가졌다.



천안동남서(서장 이종하는)는 2일 천안동남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장, 파출소장등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엔 오전 9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태조산 공원관리사업소내 6.25 참전유공자등 선배경찰관 30위의 영령이 있는 '천안인의상' 을 찾아 각과장및 파출소장과 함께 참배했다.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일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2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한 2017년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동구새마을부녀회(회장 정유년)는 지난 1일 식당산해맞이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차와어묵을 제공해 정유년 새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공주경찰서(서장 김득근)는 지난 달 30일에는 신관동에 소재한 OO원룸에 대하여 2016년도 마지막 인증을 하며 현재까지 총 80개의 원룸(공주교대 주변 30개, 공주대 주변 50개)에 대하여 학생안심원룸을 인증하였다.

경찰청, 불법무기 검거보상금 대폭 상향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 기여할 것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일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오페스타터블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

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령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관기자

청양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관내 시장·공장·다중이용업소 등 25개소 대상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운)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에 화재발생 위험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시장, 공장, 다중이용업소 등 25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취약대상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점검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소방계획서에 의한 소방교육·훈련 등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소방서는 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해서

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보완완료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은 평상시 관련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확인과 함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안전확보 및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 고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층 가리지로, 현대빌딩 1층, 2층에 드셔, 제철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능 노릇입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중구 동대문로 20-18 현대빌딩 1층
www.daejeontoday.com

겨울철 레이저이용 안전수칙 홍보

태안소방서, 스키장 안전사고 수칙 홍보 나서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겨울철 레이저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스키장 안전사고 수칙 홍보에 나섰다. 겨울철 레이저시설 이용 시에는 날씨가 추워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운동으로 발목, 무릎, 손목 등 풀어줘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전장비는 준비운동만큼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멋을 내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한 경우 부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또한 자의선 차단용 고글도 착용하여 햇빛이

눈에 반사되는 설맹증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코스를 선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정해야 한다. 초보자 코스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중급, 고급 코스에서 즐길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상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다른 이용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스키장은 신나는 곳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거운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대전지방경찰청 2017 시무식 '새해 여는 희망찬 대전경찰'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2일 오전 이상철청장과 2부장, 각 담당관·과장과 지방청 직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홀에서 2017년 시무식 '새해를 여는 희망찬 대전경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이상철 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016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신년사

정유년 2017년 새해에 바란다

김헌태
한국정신건강신문 대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닭의 해이다. 불빛과 도전, 희망, 열정의 해가 시작된 것이다. 새해 소망을 담은 모든 이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 건강과 축복, 활기차고 정의로운 사회, 취업도 잡히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다. 새해 이런 덕담들이 오가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여전한 것 같다.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침체되었어도 보다 나은 희망찬 내일을 위한 모두의 마음은 새해를 맞으면서 역시 박차고 새롭기만 하다. 이런 새해벽두의 소망들이 올 한해 계속 이어지면서 축복이 넘치는 나라와 사회, 가정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만큼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온 지난 해였기 때문이다. 목은 때를 툭툭 털어버리고 정유년 새해를 맞는 마음이 그 어느 해보다 새롭다.

예로부터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과거 방송사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란 개그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누리던 시절도 있었다. 웃음이 곧 행복이고 희망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지혜의 소산이다. 웃고 또 웃고 웃음이 웃음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행복분위기로 차고 넘치는 사회를 그려본다. 그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는 슬픔과 불행, 우울과 고통 등 모든 부정적인 것로부터 탈출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꿈과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웃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키우는 긍정의 그릇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긍정으로 출발하여 웃음꽃이 만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위기를 가꾸는 해가 된다면 새해 정유년은 우리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아픈 만큼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도 우리 앞에 바짝 다가설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대서특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드디어 세계 OECD국가 중에서 스위스를 앞지르고 1위에 올라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개개!" 이것도 새해 소망 중에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적인 일련의 과정이 진행형에 있다. 사상 최악의 A조류독감에 심각한 경제침체, 청년실업 등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합집산의 물밑정치가 태동하고 있다. 모두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새해 우리 모두는 부정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꿈과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새롭게 되새기며 이를 우리 사회의 모멘텀(momentum)으로 삼아야 한다. 기쁨과 행복, 밝은 희망이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의 긍정사회로 현실로 다가와야 한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퇴행적인 부정부패를 하루속히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붉은 닭의 정유년 힘차게 휘를 치며 새로운 꿈과 희망찬 새해설계를 통하여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나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행복한 삶과 긍정의 미래가치로 승화시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7 새해 사자성어, 구직자 '우공이산'

사람인 '새해 소망과 각오 담은 사자성어' 조사 결과... 직장인 '득이지추'

2017년은 정유년이다. 아침이 밝을을 알리는 닭의 해에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와 직장인 1,259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과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는 '우공이산', 직장인은 '득이지추'를 가장 많이 들었다.

먼저 구직자(370명)의 새해 소망과 각오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어떤 일이든 꾸준히 열심히 해 반드시 이룬다는 뜻의 '우공이산'(17%)이 1위를 차지했다. 내년에도 극심한 구직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노력해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겠다는 구직자들의 의지가 나타났다.

계속해서 2위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복발양'(15.9%), 3위는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룰 수 있길 바란다는 '유지경성'(13.5%)이 차지해, 어려움이 끝나고 결실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

났다.

이외에 ▲앞으로 잘 될 희망이 있길 바란다는 '전도유망'(7.6%),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성장한다는 '일취월장'(6.5%),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의 '승승장구'(5.9%), ▲우연한 행운을 잡는다는 뜻의 '맹귀부목'(5.4%),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하길 바란다는 '환골탈태'(5.1%), ▲넓고 커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기상을 갖겠다는 뜻의 '호연지기'(5.1%), ▲여러 번 실패해도 굽히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철전팔기'(여러 번 실패해도 굽히지 않고 이겨냄)'(5.1%) ▲세상을 덮을 만큼 뛰어난 재주를 갖겠다는 '개세지재'(3.5%)가 10위 안에 올랐다.

직장인(889명)은 새해 소망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원하던 일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길 바란다는 '득이지추'(16.9%)를 첫 번째로 뽑았다.

다음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반드시 희망하는 것을 이루길 바란다는 '근지필성'(15.6%),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겠다는 '도주의돈'(13.9%), ▲편안하게 누워서 근심 없이 지낸다는 뜻의 '고침안면'(11.1%),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는 '백년대계'(10.7%)가 5위 안에 들었다.

이외에 ▲꿈없이 힘차게 발전해 가겠다는 '생생발전'(6.1%),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신대로 나간다는 '특립독행'(4.9%),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겠다는 '자강복식'(4.8%),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길 바란다는 '난의포식'(3.7%), 세상이 변하는 대로 함께 따라서 변하고 적응하길 바란다는 '어세추이'(3.5%), ▲여러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되겠다는 '군제일학'(3.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년도 대한민국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했을까?

전체 응답자들은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는 '부위정경'(26.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고 사람마다 의식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길 바란다는 '가급인족'(14.8%), ▲탁한 것은 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오길 바란다는 '격탁양청'(13.3%)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새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 '극세척도'(12.6%), ▲정의가 반드시 이기길 바란다는 '사불범정'(11.8%),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전화위복'(9.5%), ▲행복과 이익이 넘쳐흐를 정도로 기뻐하길 바란다는 '복덕원만'(4.8%), ▲태평성대를 즐긴다는 '고복격양'(2.9%)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낙동초 총동문회, 전교생에게 장학금 전달 낙동초등학교총동문회(회장 김진남)는 2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낙동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장학동장 플러스 100'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여교육지원청, 청렴결의로 새해업무 시작 2017년 새해 사무식을 청렴결의로 시작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식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 및 인사발령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금산교육지원청, 2017년도 사무식 실시 2일 청내 회의실에서 2017년도 사무식을 실시했다. 금산교육지원청내 전 직원 60여명과 함께 실시한 이번 사무식에서는, 2016년도 하반기 우수공무원 표창, 1월 1일자 전임직원 소개, 2017 월중 추진업무 전달, '행복을 깨우는 풍수지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혁신과 참학력 신장에 모든 열정을 쏟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총령사를 참배한 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사무식을 마친 김 교육감은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떡국으로 점심을 함께하고 힘차게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전여고, 해군 제 3함대 대천함과 자매결연 대전여자고등학교(교장 오광식)는 지난 30일 목포 해군 3함대 기지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어연수로 2017을 시작하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원장 김동영)은 지난 2일 충남도내 초·중등 교사 55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사 영어발전과정 직무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공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동계 계절학교 운영

관내 유·초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방학 중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초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하는 201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동계 계절학교를 운영에 들어갔다.

동계 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절감하고 방학

중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며 이번 계절학교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특수체육, 동화구연, 공예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방학 동안 가정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계절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

들도 사귀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가능성 향상, 지역사회 적응,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17년 사무식 및 월례회의 열려

"교육가족과 시민에게 친절과 배려 염두하며 규정 맞는 업무 추진" 강조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2일 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무식 및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번역봉사로 나눔과 배움의 지평 넓혀

8개월간 수행해온 칸아카데미 교육 콘텐츠 번역 봉사활동 마무리



나눔과 배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김현수)의 번역봉사 등 폭넓은 교육활동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별축제', 'OPEN SASA'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나눔을 강조해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최근 약 8개월간 수행해온 칸아카데미(KHAN ACADEMY) 교육 콘

텐츠 번역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재학생 24명은 깊이 있는 수·과학적 이해와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물리학 관련 191개의 동영상 상을 번역했으며, 그 중 70여개의 영상에 대해 번역본을 완성했다.

단순한 해석이나 번역을 넘어, 영상과의 조화 및 기능성, 전달력까지 모두 갖

추어져야 하는 영상 번역 작업의 곤란도를 감안하면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칸아카데미의 한국어 버전 번역 활동을 주관하는 커넥트재단 담당자는 평했다.

그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봉사단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던 멘토 이진화(KAIST 물리학과) 학생은 지난 8개월간 학생들의 번역 역량이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번역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오대영 학생(2학년)은 "기숙학교 생활로 인한 제한적 교외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나눔에 대한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들이 보여준 높은 질적 수준의 결과물은 칸아카데미 공식 한국어 사이트(<https://ko.khanacademy.org>)에 제공되며, 올해엔 더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번역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대전가오초, 겨울방학

영어 캠프 실시

대전가오초등학교(교장 박해란)는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3~6학년 총 44명을 대상으로 '가오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

특히 3~4학년 참가 희망자가 약 70명이 될 정도로 학생들의 영어 캠프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다.

총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겨울방학 영어 캠프에서는 Escape the story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Rapunzel', 'Hansel and Gretel', 'The King's new clothes', 'Jack and the Beanstalk'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양한 Puzzle를 통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함께 읽고 이야기와 연관된 Matchstick puzzles, Logic puzzles, Code puzzles, Quiz 등을 함께 풀며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을 익히고,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클레이와 그림자 인형으로 직접 만들어 영어로 인형극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표현을 직접 말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김정환기자

청양교육지원청, 정유년

새해 사무식 개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2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사무식과 2017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월례회의에서는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이명범 시설팀장의 5명의 전임직원에 대한 소개 및 부임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임직원들은 부임 인사를 통해 청양교육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중철 교육장은 신년사를 통해, "행복한 배움, 감동 청양교육"이라는 비전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활동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양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 고품질의 청양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동정

신년 교례회



복기왕 아산시장은 3일 오전 11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온양문화원 신년하례회에 참석.

신년 교례회



김홍장 당진시장은 3일 오전 11시 웨딩의전당가원에서 열리는 당진 시신문인협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

신년 교례회



오인연 아산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11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7년 온양문화원 신년하례회에 참석.

신년 교례회



한상기 태안군은 3일 오전 11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신년 교례회에 참석.

신년인사회



이석화 청양군은 3일 오후 2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7년 정유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조종철 청양교육장은 3일 오후 2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7 정유년 신년 인사회' 참석.

당진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접수

농기센터, 112개 사업 189개소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도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2017년 시범사업은 식량작물과 축산 기술, 채소화훼, 과수특작,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종자개발, 인력양성, 생활자원, 남·북부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는 10개 분야의 112개 사업, 18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당진시로 돼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농업법인으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접수기한인 23일까지 센터 본소와 남·북부지소를 비롯해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31일부터 2월 6일까지 팀별 현지심사를 거쳐 2월 10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교과 등의 분석결과를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된다.

당진=최근수기자

(042)538-3030

신년사로 새해 군정운영 방침 밝혀

한상기 태안군수, 행복한 군민시대 실현·600여 공직자 소신과 끈기 군민 안정시대 열자



한상기 태안군수가 "정유년을 맞아 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창의와 긍정의 사고 속에서 군민과 약속한 '행복한 군민시대' 실현에 한층 더 매진해 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군수는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 한해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00여 공직자가 6만 4천 군민들을 위해 소신과 끈기를 갖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기 군수는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행정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119' 제도와 '민원관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마을회관 순회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선진 자치군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 군수는 "저와 공직자들은 더 큰 생각과 더 높은 시선으로 태안 앞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찬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취임 당시 군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유년 새해에도 보다 더 힘차고 역동적인 선진자치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2017년은 '넘버원 청양·행복한 군민'

청양군, 2일 전 직원 참석한 시무식 가져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일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7년 정유년, '넘버원 청양, 행복한 군민'을 향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시무식에 참석한 군 산하 전 직원은 정유년 붉은 닭의 해, 매일 새벽 세상을 여는 닭의 밝은 기운과 부지런함을 본 받아 올 한해 불공불급(不狂不及)의 정신으로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석화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우리가 꿈꾸는 대망의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전환기"라며 "남이 하는 방식만 뒤 따라 간다면 앞설 수 없다. 새로운 생각과 발걸음으로 올 한 해 후회 없이 뛰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2020년까지 인구 3만 5000명 달성이라는 군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자치단체의 존립근거를 든든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지농촌 만들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농가평균소득은 5000만원으로, 역대농부는 500호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농업지원 정책을 뛰어넘는 사업을 발굴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남도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중식)을 전면 실시해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고 학생 572명과 정산고 학생 27명 등 총 843명의 학생에게 학교급식 비용 3억 5649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학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청양읍·정신면 복지허브 행정복지센터로 재탄생

청양읍 청양읍과 정신면이 정부 복지허브화 정책에 맞춰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재탄생했다.

청양읍에 따르면 청양읍과 정신면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전담인원을 증원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기존 행정 기능에 복지의 기능을 포괄한 의미를 담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사회보장시스템과 주민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민간과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청양읍·정신면 행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용되고,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허브화 실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석화 군수는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최 접점에서 우리 동네 복지 중심 기관이 돼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올해는 열매 맺는 한 해 만들것"

김홍장 당진시장, 시무식서 올해 시정운영 계획 밝혀



김홍장 당진시장이 2017년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 신년사에서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해 달라"고 밝히고 흔들림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김시장은 올해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강조하고, 신성장동력의 근간이 될 융·복합 탄소섬유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충남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올해는 국가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본격화하고,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당진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인 제3차 항만배후단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업의 자생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나루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제2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6차 산업 컨소시엄사업단 구축을 제시했다.

행복이 가득한 매력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아동친화도시 인증 ▲주민참여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지난해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한 당진형 주민자치 '소통중심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단위 소토론회를 도입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정설명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이민식씨 온양3동에 '사랑의 쌀' 기탁

아산시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홍인순)은 지난 12월 30일 온양3동 거주자 이민식씨가 연말 어려운 가정에 후원코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백미 100포(1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차상위 가정 등 총 100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민식씨는 "미약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눔으로 사랑을 키워갈 수 있어 행복하다. 내년부터는 매월 백미 20포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봉내 행복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식씨는 올해 4월부터 어려운 가정에 매월 백미 15포(10kg)와 계란 15판(30개/판)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계속해서 설 명절 때마다 100가구 정도의 떡국 떡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김경식씨 배방읍에 따뜻한 기부

아산시 음봉면 소재 회사원 김경식(30세)씨가 지난 12월 30일 저소득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을 주기 위해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병국)에 연탄 600장(34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연탄은 관내 독거어르신께 전달했으며, 따뜻한 겨울과 이웃의 정을 함께 선물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김경식씨는 작년 연말에도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연탄 400장을 후원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종식 지원 등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아산=리량주 기자

우리/동네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

계룡시장·충남도민체육대회 성공·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7년을 ‘시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5개 분야의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최홍묵 시장은 2016년은 눈앞의 성과보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해 나가면서, 미래 100년의 계룡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2016군문화축제 성공개최, 세계적 가구기업인 이케이(KEA) 유치, 향적산 차의 숲 조성사업 추진, 계룡소방서 개서, 계룡 제1농공단지 준공, 제1회 계룡건강페스티벌 개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두계천 물놀이장 편의시설 확충,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및 안전센터 기능강화 등을 시정의 값진 결실로 꼽았다.

2017년 역점시책으로는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민선4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 ▲효의 실천과 시민과 소통하는 효소행정 운영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조성 ▲지역도시 기반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계룡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항 이행에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인구증가사업 추진, 향적산 차의 숲 조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룡 제1농공단지 기업 유치, 신도안~세동간 도로개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서대전~연화교차로간 도로 확장, 2030계룡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면서 1,000원 효성택시 운영, 취약계층 재정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한, 각 부서와 마을경로당 1:1 자매결연 추진,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초청 정책감담회 개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갈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4만 2천여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부수도 계룡’ 건설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자치만 강한 도시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한 해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100, 슬레이트 처리 200동, 빈집정비 80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 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창고 등 부속 건물포함)로 건축해야 한다.

주택개량대상자는 금융기관 담보평가에 따라 융자금이 책정되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연리 2.0% 조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동당 200만원 범위에서 군에서 직접 발주하여 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게 되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부여군수 최고령어르신 찾아 세배

읍면 최고령어르신 16명 찾아 세배 드려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관내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 신년세배를 드렸다.

신년세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1일 올해 부여군 최고령어르신 이예규(101세, 홍산면) 할머니를 방문하여 어르신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의 고견을 들었다.

오후에는 10명의 읍면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 정성어린 신년세배를 드리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배를 마친 이용우 군수는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시정의 주인 시민이라는 명제 잊지 말자”

논산시, 2일 전직원 국민체육센터에서 시무식 갖고 ‘따뜻한 시정’ 다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丁酉年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2017년 시무식을 갖고 도약과 번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시무식을 통해 “아름과 보람이 교차했던 丙申年 한해가 지나고 희망찬 ‘붉은 닭의 해’가 새롭게 시작됐다”면서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만큼 철학같은 어둠 끝에 찾아오는 광명의 아침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황 시장은 이어 “올해 논산시의 시정 기조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 6기 시정의 연속을 유지하며 한순간도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준엄한 명제 잊지 말고 시민들을 시정의 중심에 세워 가장 사람다운 논산 실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온 힘을 모아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행정 전반에 걸쳐 각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많은 지역발전 동력을 구축하면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거북선 바닥에 노를

램, 밀리터리 파크 조성사업, 강경 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등 역점 업무를 비롯해 교육, 문화, 복지, 농업 등 시정 전반에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촌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기업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주요 역점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시장은 “저와 9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에서 길을 찾겠다”며, “2017년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해도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한 공직활동하며 13만 시민을 향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통정

신년교례회

노박래 서천군수= 3일 오전 11시 명월당홀에서 열리는 장항읍발전협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최고령어르신 세배

이용우 부여군수= 3일 오전 9시 40분 ~ 잠양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 최고령어르신 세배.

서천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과 면적, 토지이용현황, 도로조건 등 필지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입지적 특성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천군 지역 내 1만 8000여 필지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대상토지에 대한 공부확인표와 현지답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 실시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토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기열람·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제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안정차 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행정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군 지속발전가능한 ‘부여비전 2030 선포식’ 열려

함께 가는 희망부여 · 미래 100년을 설계하다



부여군이 이용우 군수(이 정유년 丁酉年) 새해 첫날, 글로벌 명품도시의 도약을 다짐하는 NEW VISION 2030 중장기발전계획 선포식을 통해 ‘함께 가는 희망부여’

의 6개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부여를 찾고 싶은 문화휴양환경 중심지, 백제역사 콘텐츠 중심지, 첨단시설

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사명이라 ▲일반산업단지내 식품가공산업 유치 ▲천수구역내 중부권 MICE 및 쇼핑단지 조성 ▲한강레저스포츠 및 연계산업단지 ▲저탄소 녹색도시 및 에코유지업 ▲충청산업문화화도 조기 착수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전략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이번에 선포된 부여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10년 도에 수립된 비전 2020 이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녹색성장, ICT 창조산업, 자치분권 등 변화된 행정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더욱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추진된 결과물이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부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정체성 제고를 위해 ‘Lovely BUYEO 러블리 부

여’를 대표 홍보문구로 선정해 이블 시각화한 BI(Brand Identity)를 공식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브랜드를 발표하면서 “부여가 전통에만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비전 2030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품속에 빠르게 녹아날 수 있는 도시브랜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군수는 “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은 10년, 10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부여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군민의 다양한 요구는 물론 다변화되는 사회적 환경요소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7만여 부여군민과 800여 공직자와 함께 미래 우리지역이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 가져

계룡시, 시민 등 참여분위기 조성, 성공 개최 동참 결의 다져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6개월여 앞두고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개최의지를 다졌다.

전준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과와의 간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올해 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운영, 예산집행기준과 보조금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준비위원회는 올해 도민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예산 총 26억원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도민체육대회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도민체육대회 주요사항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계룡시에서 처음 열리는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계룡의 힘 화합으로! 충남의 꿈 열정의 로!’라는 슬로건 아래 210만 충남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전준호 위원장은 “계룡시가 개최 이래 처음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시체육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충남도민이 하나되는 대화합의 문화체육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계룡종합운동장의 23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육상, 수영, 축구, 게이트볼 등 19개 정식 종목이 펼쳐진다.

천안시 7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시민 85%가 ‘만족’

공공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85%가 만족

천안시 7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85%가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2월 2주간 ▲이용현황 ▲장서 ▲시설 ▲문화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방문편의성 ▲정기간행물 ▲도서관 건립 등 9개 분야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도서관 이용자 786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자료열람 60%, 개인공부 25%순으로 자료열람 목적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횟수는 주 1~2회 방문이 가장 많고 주로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도서관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직원, 시설, 방문편의성, 장서 순으로 매우 만족’에 가까운 응답 결과를 얻었으며,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이용자가 91%, 주변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추천하겠다는 이용자가 86%로 높게 나타나 도서관이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7개 공공도서관은 설문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내년 도서관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전반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만족도 대상 공공도서관 7곳은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성거도서관 ▲아우내도서관 ▲도솔도서관 ▲두정도서관 ▲신방도서관이다.

천안=김정환기자

홍성목 논산시 부시장 취임

“대한민국 따뜻한 행복공동체 1번지, 총점과 예학의 고장, 역사적 전통과 미래성장동력을 갖춘 희망의 논산시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일 취임한 신임 홍성목(洪性睦·58) 논산 부시장은 “논산, 새로운 도약의 100년’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투혼을 아낌없이 이룩 논산에 쏟아 붓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1978년 공직에 입문한 홍 부시장은 충청남도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인사담당,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을 역임한 인사통이며, 부여군 부군수 등을 지내며 인사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경험까지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논산시는 신임 홍성목 부시장이 인사·행정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다양하고 폭넓은 행정 분야 접목을 통해 황명선 시장과 함께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이길구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통정

월간 업무계획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3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월간 업무계획 보고, 오전 11시 보령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7년 신년하례회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통장반



이완섭 서산시장 = 3일 오전 10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통장반에 참석.

신년인사회



박동철 금산군수 = 3일 오전 10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고등학교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 추진

공주시(시장 오시택)는 2017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찬란했던 백제시대의 고대문화가 전파되어 꽃피운 일본문화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백제의 얼과 역사, 문화 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인재육성하기 위해 해외역사탐방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9개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17년 4월부터 학교별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현 일대를 3박 4일 일정으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등 효율적인 역사탐방을 위해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주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교장단과 함께 1차로 현지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고등학생에게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학교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이은창 팀장은 "처음 실시하는 해외역사탐방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역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장관상 수상

금산군이 추진해 오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군은 2016년 아이돌봄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김진숙씨가 여성가족부 장관상, 군수상에는 이현경·김옥에씨가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김진숙씨는 8여년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양육으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등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출산시대에 이등수 감소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이돌봄비 역량강화, 질 높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제공 등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이완섭 서산시장, 시무식서 일화관중(一和貫中) 자세 '강조'

“모든 시책과 사업 가시화” 당부

서산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시무식'을 열고 정유년(丁酉年)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시무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가뭄과 폭염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과 17만 5천여 시민들이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2017년에도 서산시민 모두 행복을 찾고 희망을 꿈꾸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뜨는 서산'을 만드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일화관중(一和貫中)을 읊며 시장의 화두로 정했다.

일화관중은 '하나로 화합해 화살이 과녁을 꿰뚫는다'라는 뜻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시장의 각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이 활시위를 힘껏 잡아당긴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과녁을 꿰뚫기 위해 화살을 쏘아 보내야 할 때"라며 "그간 추진해온 기반을 토대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일천여 공직자가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정민기자

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1월 신청 시 자동차세 연납부액의 10% 할인

보령시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 공제 해주는 제도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한번만 부과한다.

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를 할인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금연! 함께 치료해요”

공주시보건소, 태양광 표지판 설치... 시각적 홍보효과 극대화



공주시(시장 오시택)가 시민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시는 금연구역 내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과 금강신관공원 등 금연구역 2개소에 태양광 금연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표지판은 태양광 전기를 이용

해 밤에는 환하게 등이 켜져 야간에도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공주시보건소는 연중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상담 전담 간호사 2명을 금연상담실에 배치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개별상담 및 심리적지지, CO 측정, 금연패치 및 물품지원 등 금연을 적극 돕고 있다

이율리, 일과시간 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학생, 직장인 등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야간금연상담실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 관내 사업체 등을 방문하는 이동금연실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홍보를 통한 주민 금연교육 실시,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공공이용시설 및 조례제정 금연 구역 내 흡연예방활동 연중 전개 등 금연사업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복남 건강과장은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라며, "적극적인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흡연예방 예방교육과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를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상담실(041-840-8798, 8799)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아토피 천연 화장품 만들기

금산군보건소 2급 자격증 전원 합격



금산군보건소가 아토피 환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천연화장품만들기 육성프로그램' 운영결과 수강생 전원 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지난 6개월 동안(매월 넷째 주목요일) 아토피 환아 부모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3~4시간 천연화장품만들기 교육과 실습이 이어졌다.

'국제 아로마 테라피 협회 주최'로 실시한 아토피에 방관리에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2급 강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 전원 합격 통지를 받았다.

지역 내 아토피 환아 부모 대상으로 천연제품(화장품) 만들기 2급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토피 예방관리에 힘써온 결과다.

군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알레르기 질환 환자 조기발견,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방지로 지역 주민의 건강행복 만족도를 향상시켜왔다.

올해에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천연비누 만들기' 및 '아로마 강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더불어 실습을 병행해 올해에도 자격증을 취득에 도전하겠다"며 "아토피 환아를 둔 주부의 자존감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토피 관리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공주시, 시무식 갖고 새해업무 시작

‘금성옥진’의 마음으로 시정 추진



공주시(시장 오시택)는 2일 대회의실에서 시 산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업무에 들어갔다.

오시택 공주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해에는 시민을 위해 거둔 고를 연주한다는 '위민탄금(爲民彈琴)'을 화두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올해는 팔음을 합주할 때 처음 종을 쳐서 소리를 헤치고 맨 끝으로 종을 쳐서 그 음을 거두어들여 음악을 끝낸다는 뜻의 '금성옥진(金聲玉振)'의 마음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시정화두를 '금성옥진'으로 정한 것은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의미임을 강조하며 그간 추진한 정책들이 금년에 반드시 잘 추진돼 처음 약속했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동안 강조해왔고 같이 노력해 온 정도, 미래, 청의, 화합 4가지 시정지침을 되새기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역량이라면 올해 주어진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마을 다짐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갖고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출산지원 시책 추진 ‘호응’

신생아 탄생 축하·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경제적 부담경감

서산시가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시 보건소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첫째·둘째아의 경우 1개월 이상,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상 서

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첫째·둘째아는 1인당 30만원, 셋째아는 20만원, 넷째아는 5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씩이다.

또 서산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셋째아 이후 자녀에게는 영유아양육비를 월8만

원씩 매달 36개월까지 지원하며 이는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연계 신청된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혼인·임신전 건강검진, 임신부 건강관리, 출산준비교실,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의 시책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용의 서산시 보건소장은 "영유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이임쓰리 강남구 (SBS 오전 8시20분)



영화는 자신을 적의 없이 대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도훈이 민준임을 전해 들은 모이는 부모님을 찾은 도훈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속자의 집에 찾아가 초라한 도훈의 방을 둘러보는 명숙은 적적하지만 하고, 인사하러 온 머느리가 모이임을 알고 놀라는데...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50분)

세은(김소혜)은 새로 이사한 인경(강병)의 집에서 살 생각이지만, 보현(이유주)과 인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은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케이블 명화

▲ 군도:민란의시대 (OCN 오후 3시30분)

왕권이나 권력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암투를 그렸던 기존의 사극과 달리, 백성의 시각에서 그려낸, 머리가 아닌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전복의 드라마 <군도민란의시대>

군도, 백성을 구하라!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 힘 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적대인 군도(群盜), 지리산 추석이 있었다.

잡은 자연재해, 기근과 관의 횡포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져 가는 사이, 나주 대부호의 서자 조진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운은 극악한 수법으로 양민들을 수탈, 삼남지방 최고의 대부호로 성장한다. 한편 소, 폐지를 잡아 근근이 살아가던 천한 백성 돌부처는 죽어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뒤 군도에 합류. 지리산 추석의 신 거성(新巨星) 도치로 거듭난다.

똥치면 백성, 흠여지면 도적! 망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백성이 주인인 새 세상을 향해 도치를 필두로 한 군도는 백성의 적, 조운과 한 판 승부를 시작하는데...



이라며 자신의 할아버지는 덕상이정길이라 못 박는다. 한편, 덕상은 유언장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세은은 그들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윤호(권현상)를 미국으로 보내려 하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



승준(이민성)과 함께 돌아온 인경(윤아)정은 정호(이민우)와 마주치고, 정호는 인경에게 청혼한다. 정호의 결혼선언에 놀란 민우(노영학)는 인경에게 진심이나며 따져 묻는다. 한편, 태준(이재용)은 서연(하지은)을 통해 인경에게 애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 매드맥스 2 (채널CGV 오후 10시00분)



모든 것을 잃고 정체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맥스(Max) 벨 깁슨은 자이로콥터(헬리콥터와 비슷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남자(The Gyo Captain: 브루스 스펜스)를 만난다.

그는 석유가 많은 곳을 알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하고, 두 사람은 사막 한 가운데에 약탈자들에게 둘러싸여 고통받고 감히 있는 사람들의 요새(?)가 있는 곳까지 간다. 그 사람들에게는 연료(석유)가 많이 있고, 약탈자들은 그걸 노리며 주위를 맴도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곳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할 때마다 잔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다 죽게 된 네이던을 맥스가 구해주고, 그는 맥스에게 연료를 줄테니 자기 요새 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요새에 들어간 이방인 맥스를, 그 곳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거리를 두는데, 맥스가 구해준 사람이 죽고나자, 연료도 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수 없이 맥스는 밖에 버려진 유조차를 안으로 가져오는 대가로 연료를 받기로 한다. 결국 약탈자들과 접점을 벌이면서도 유조차를 끌고 들어오는 데 성공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국가대표용인대태권도 원생, 배방읍에 후원물품 전달

어려운 이웃 생각하며 운동을 아껴 직접 전달한 것



국가대표용인대태권도(지도관 장정삼, 사범 김동희)는 12월 29일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병국)에 리면 8박사(총 2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태권도장 원생 50여

명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운동을 아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으며, 리면은 관내 저소득 가정 8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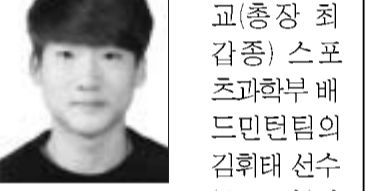
정삼관 지도관장은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하며,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길러주고 싶어 이러한 기부를 하게 되었다. 힘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용인대태권도는 매년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원품 지원을 통해 복지 허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백석대 김휘태 선수, 2017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선발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 스포츠학과 배드민턴팀의 김휘태 선수(21·남)가



2017 배드민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남자복식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17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과 세계랭킹을 토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현 국가대표 선수와 국내대회 상위 입상을 한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김휘태 선수는 이번 선발전에 참가한 23명의 선수 중 8위로 국가대표 선수를 확정지었으며, 백석대학교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로는 2011년 이상준, 2012년 이상준, 이재우, 2013년 이상준, 2014년 이상준, 2016년 고경보에 이어 4번째다.

더불어 김휘태 선수는 천안 출신으로, 천안 출신 배드민턴 국가대표는 처음이다.

김휘태 선수는 "앞으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명예,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동계훈련부터 부족한 체력을 강화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국가대표 선발 소감을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맥키스 컴퍼니와 함께 '2017 대전 맨몸마라톤' 성료

2회째 대회로 이색 새해맞이 행사 자리매김



2017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11시 11분에 대전 엑스포다리에 서 출발해 감천길 7km를 달리는 "2017 대전 맨몸마라톤" 대회가 성료됐다. 2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새해 첫날의 활기를 되찾았다.

이날 대회를 준비한 맥키스 컴퍼니 조운래 회장은 "대전에서 이색적인 새해 맞이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알려 매년 새해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발수목원, 유림공원 카이스트, 과학공원 등을 지나는 감천길 7km 코스는 아름다운 갈대 숲과 맑은 물길을 감상하며 맨몸으로 달릴 수 있는 풍광이 최고다. 주토포는 키스톤, 포토포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브라스밴드 공연으로 풍성함을 더했다. 또한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들이 기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이런 대회를 준비한 맥키스 컴퍼니 조운래 회장은 "대전에서 이색적인 새해 맞이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알려 매년 새해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산=리량주기자

한편, 이날 맥키스 컴퍼니는 참가자 및 가족, 시민 광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추위를 녹이고 새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희망떡국' 나눔행사도 펼쳤다. 또한 대회 참가자에 한해 배번호표를 제시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유성온천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환경 과학도시 대전을 알리고 이색적인 새해맞이 행사를 주최한 맥키스컴퍼니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 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송병배기자

천안=김정환기자

기산초, 겨울방학어울림 스키캠프 실시



기산초등학교(교장 김민수)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3~6학년を対象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기산초 어울림 스키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스키 기본 자세, 넘어지고 일어나는 자세, 리프트 탑승법, 보행, 활주, 전환법 등을 단계적으로 배우도록 구성됐다.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including OCN, 채널 CGV, Mnet, MBC 스포츠플러스, SBS 스포츠, YTN, 한국경제TV,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MBC 뮤직, and JEi 재능방송.



김지철 충남교육감, 홍성 총령사 참배 후 새해업무 시작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일 김한식 부교육감, 도교육청 국장, 과장들과 함께 홍성 총령사를 참배한 후 2017년 새해업무 시작을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제2대 공주세종대전지사장 김남표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는 지난 2일 제2대 지사장으로 김남표 지사장이 취임했다.



충남대 시무식 개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2017년" 충남대가 2017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오석성 총장과 학무위원 및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1월 2일 오전 10시,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 '아침뜰'에 후원금 293만8000원 전달 LH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김기승)는 지난해 12월 30일 미혼엄마와 아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홀아비동복지회 '아침뜰'을 찾아 후원금 293만8000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꿈을 향한 도전!" 의당초등학교(교장 오병익)는 지난 2일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인성개발 및 다양한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겨울방학 캠프 개강식을 가졌다.



대전보훈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 결의대회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장 강운진은 2일 오전 9시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조예원 전국 수석 차지

2013년 이어 올해 국시 전국수석 배출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2일 작업치료학과 4학년 조예원 <사진> 씨가 '제44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예원 씨는 "수석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믿기 힘들

었지만 이번 결과가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교수님들 덕분에 라고 생각한다. 매 학년마다 수업이 끝나면 복습을 하고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물어가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었고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히며 "또한 그들 스터디를 하면서 학생들간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했던 것도 좋은 결과를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건양대 차태연 작업치료학과 학과장은 "건양대 작업치료학과는 건양대병원과 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최상의 임상실무역량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세계 작업치료사연맹(WFOT)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고,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 임상실습을 통해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CK-1사업의 일환으로 작업치료사의 역량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인력으로서의 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양대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해까지 6년 연속 국가시험 전원 합격의 신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3년에도 작업치료사 전국 수석을 배출한 바 있다.

이정복기자

심병섭 제5대 당진시부시장 취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최선 다할 것"



축적한 경험은 일조치 등 중국과의 교류 확대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당진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도청 친환경농산과에서 인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경분야 지식도 풍부해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당진형 3농 혁신과 6차산업화, 소득 작목 다변화 등 농업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청 심병섭 부이사관이 2일 제5대 당진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1959년생인 심부시장은 지난 1983년 행정7급 공채로 고령인 홍성군에서 첫 발령 이후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과 서부면장을 역임한 뒤 2006년 충청남도 무소장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등을 역임한 그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업무 수행능력으로 덕망이 높고 공직자들로부터 신망도 두둑하다. 특히 그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제교류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진=최근수기자

정유년 힘찬 출발 알리는 시무식

금성백조주택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 다하자"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유년의 의미를 담아 "어둠속에서도 곧 도래할 빛의 출현을 알리는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대내외 불안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금성백조주택이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하면서 급격히 커진 조직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소통이 원활한 조직 만들기에 중점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의 시대에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고도화된 리스크 분석과 사업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지금과 같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모든 투자사업과 프로젝트의 잠재부실을 상시 점검해 개선방안을 찾고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수지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임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정치, 경제의 불안정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김태성기자



새마을금고 대전충남 실무책임자협의회

"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

새마을금고 대전충남 실무책임자협의회(회장 전무 송재진)는 'MC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의 일환으로 2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줌도리 기금 7400만원을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봉관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기금은 대전충남 74개 금고의 추천을 받아 불우이웃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했다. 대전충남 실무책임자협의회는

지난 2000년도부터 총 6억86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5억 6600만원의 성금을 400여곳의 어렵고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사랑의 줌도리 기금 7400만원을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봉관에 전달했다. 'MC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에 목적으로 1998년부터 19년간 이어져온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송병배기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귀감공무원 선정·인증패 전달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조합원 설문 통해 귀감공무원 3명을 선발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귀감공무원 선발은 민주적인 조직 문화 조성 및 업무처리 가능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설문을 통해 가장 많은 조합원이 선택한 과장급 이상 1명(과장 김한직)과 팀장급 2명(팀장 방효찬, 이모환)을 선정하고, 그 분들의 좋은 생각과 행동을 본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12월 30일 소속부서를 찾아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귀감공무원 인증패를 수여했다.

아산=리랑주기자

올해의 KAIST인상 박희성 교수 선정



KAIST(총장 강성모)는 2016년 올해의 KAIST인상에 화학과 박희성

(46·사진) 교수를 선정하고 2일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년도 시무식에서 시상했다.

16회 짝을 맞는 올해의 KAIST인상은 한 해 동안 국내외에서 KAIST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 연구 실적이 탁월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수상자인 박희성 교수는 양과 차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을 개발해 KAIST의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박 교수는 지난 2011년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단백질 인산화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해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 교수는 선형 연구를 발전시켜 인산화의 200여 종의 다양한 단백질 변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지난 9월 사이언스(Science)에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의 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표적항암제 개발 등 글로벌 신약개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복기자

제28대 황우원 목면장취임



정양근 목면(면장 황우원)은 2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8대 황우원

목면장 취임식을 가졌다.

황 면장은 취임사에서 "님버원 청양, 행복찬 면민을 위해 인구가 증가하고 부자농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위대한 청양 군민 만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계각층과 격의 없는 대화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팀워크를 중심으로 조직의 결속을 다져 살기 좋은 목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면민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인사

- 세종시교육청
 - ◇3급승진 ▲교육행정국장류재승
 - ◇4급승진 ▲재무과장서한택
 - ◇5급직위지정 ▲행정과학생배치담당 김희경

- 대전 중구청
 - ◇4급승진 ▲복지경제국장 김태대 ▲의회 사무국장 이의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 ◇5급승진 ▲총무과최상훈 ▲문화체육과 최정필 ▲환경과 박필중 ▲도시과 최기훈 ▲안전총괄과 송하영 ▲보건소김주현 ▲정명숙



공주여고 우수학생 26명,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잇는다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차세대 글로벌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 상해 일원의 명문대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중국의 경제발전 현상과 역사, 문화를 체험했다. 참가학생 26명과 유공교원들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탐방과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기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젊은 인재상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타입의 '자동화 일자리 소멸론'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슬픈 주장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증거는 전무하다. 123차 산업혁명 역사의 교훈은 기술 혁신은 직업 형태를 바꾸나, 전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기존의 일자리들은 분명히 사라졌다. 그러나, 인간의 새로운 욕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해 온 것이다. 질문의 핵심은 사라지는 일자리 무엇인가가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 지는 일자리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양적 생산성을 증대했다. 80%의 농업 인구가 하던 일을 기술혁신으로 2% 농업 인수로 대체하고 78% 인구는 산업 인력이 되었다.

2차 산업 혁명은 자동차, 냉장고 등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물질 욕망을 충족시켰다. 2차 산업혁명 시기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가 3분의 2가 서비스업종으로 이동했고, 노동 시간 당 생산성은 108%, 급여는 85%가 증가되었고 노동 시간은 감소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SNS 등 인간의 사회적 연결 욕구를 만족시켰다.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생산성 증가로 사라진 직업들을 새롭게 부상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로 대체했다.

즉,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은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형태를 바꾸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70년 3만종의 일자리가 2013년, 38만종의 일자리로 다양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술 혁신에 대항하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인간의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이는 주장이 수많은 미래 연구 기관에서 강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 미충족 욕구에 대한 한계론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성 증가를 상쇄하는 새로운 인간의 욕구가 나타났으나,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결국 인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미충족 욕구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일자리 논의의 본질이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많은 이론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존, 안정, 사회성, 자기 표현, 자아 실현이라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각각 12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의 1,2 단계인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물질 욕구들, 3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의 3 단계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연결의 혁명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 혁명은 매슬로우의 4,5 단계인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명이 될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로봇과 인공지능에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위탁한 인간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문의 혁명에 몰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은 우선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에서 비롯될 것이다. 개인의 소비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형경제'가 도래하고 있고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화된 맞춤형 코디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하여 현실적인 비용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은 각각 창조적인 일과 반복되는 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자기 정체성 표현을 지향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창조적인 일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스펙트럼 인간은 미래에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인재상이 될 것이고 인터넷에 있는 정답을 맞추는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창조와 협력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고 '협력하는 과학'이 미래 인재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산업혁명 과정에서 분리되었던 생산과 소비가 고 효율의 집단 지능으로 결합하는 디지털 DIY가 일반화될 것이다.

자기 조직화된 개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창조적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요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모습은 자아 실현에 도전하는 기업가적 인재들이다.

미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 초생산을 담당하는 과학적 인재와 개인의 정체성을 담당하는 인문적 인재, 그리고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담당해 갈 사회적 인재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요구할 것이다.

과학기술, 인문학, 경제사회의 초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미래 청년의 모습을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려보기 바란다.

사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력서에 채용 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직장 전화번호와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 쿠키(사용자PC에 만들어지는 임시파일)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차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차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의 본격 시행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의사회 구현 노력 필요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며 노력과 계층 상승의 문제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지난 8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계 소비 및 투자'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 상승의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응답자의 20%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고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단 6.7%에 그쳤다.

더욱이 10명 중 3명(29.5%)은 포포에 당첨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인식하는 등 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

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불안감도 커졌다. 10명 중 7명이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불안감 매우 불안하다 25%, 약간 불안한 편 46.4%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경제적 불안을 겪는 소비자들이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여성(남성 68.1%, 여성 74.5%)과 40대(20대 69%, 30대 69.8%, 40대 75.6%, 50대 70.8%) 소비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컸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저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작년과 비교 올해 동안 저축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저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난해 39.4%에서 올해 47.5%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저축을 통해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가계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이 시급하다.

기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나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은 말할 나위 없거니와, 배신과 증오만이 온 국민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에게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준 해였다. 우리는 나라의 커다란 지도자를 잃었고, 갈 길 없이 가나간 방향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대대로 시련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는 내공을 지녔다는 사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닥을 친 민심은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나라를 이끌기 위한 지도자들의 노력 또한 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그러한 과도기에 놓인 우리에게 무엇이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지도자의 등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준비가 무르익지 않고 있다. 주인을 잃은 권력을 손에 쥐려는 제2, 제3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력 확장 경쟁에만 눈이 멀어 있다.

말로는 국민을, 나라를 위한다고

는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여하에 따라 뭉치고 갈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노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민대통합의 힘이다. 국민들은 흩어졌던 민심을 바로세우고 하나로 합쳐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자고로 분노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병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악의 손길과도 같다. 이제 분노의 손길을 눈앞에서 거두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 지도자로 적합한지 냉철하고 현명한 혜안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단순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정치

는 공감하고 함께 끌어 나아가 때에야 제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 정치인 누구 하나만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공감하고 지향하는 정치만이 올바른 정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새로운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적기이다. 그동안의 혼란을 거름 삼아 곱고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멋진 정치를 꽃피워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두 손 맞잡고 나서야 한다.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밝혀 그 죄를 묻되, 그것에 분노하고 함몰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을 깨닫고, 더불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배우는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대한민국 모두에게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는 어둠을 밝혀 빛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시의 향기

사춘기



채인중 작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
내고 싶은 것
내 멋에 살고 싶다
꽃이 예쁜 걸
이제야 알았다.
엄마 아빠나 예뻐요

성인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다
언지 곤지 따라 할 때가
엇그젠데
어느새 사춘기란다.
꽃이 되어 벌들을 불러 보고
벌이 되어 꽃을 찾아가고 싶단다.
부모들은 벌인지 꿀벌인지

부나뻐이 될까봐!
조심스럽다.
마음의 사춘기
몸의 사춘기
향기 있게 누가 더 아름답게
어울려주면 좋으련만
가슴속품은 사랑은 멀기만하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multiple rows of small text, likely a list of news items or event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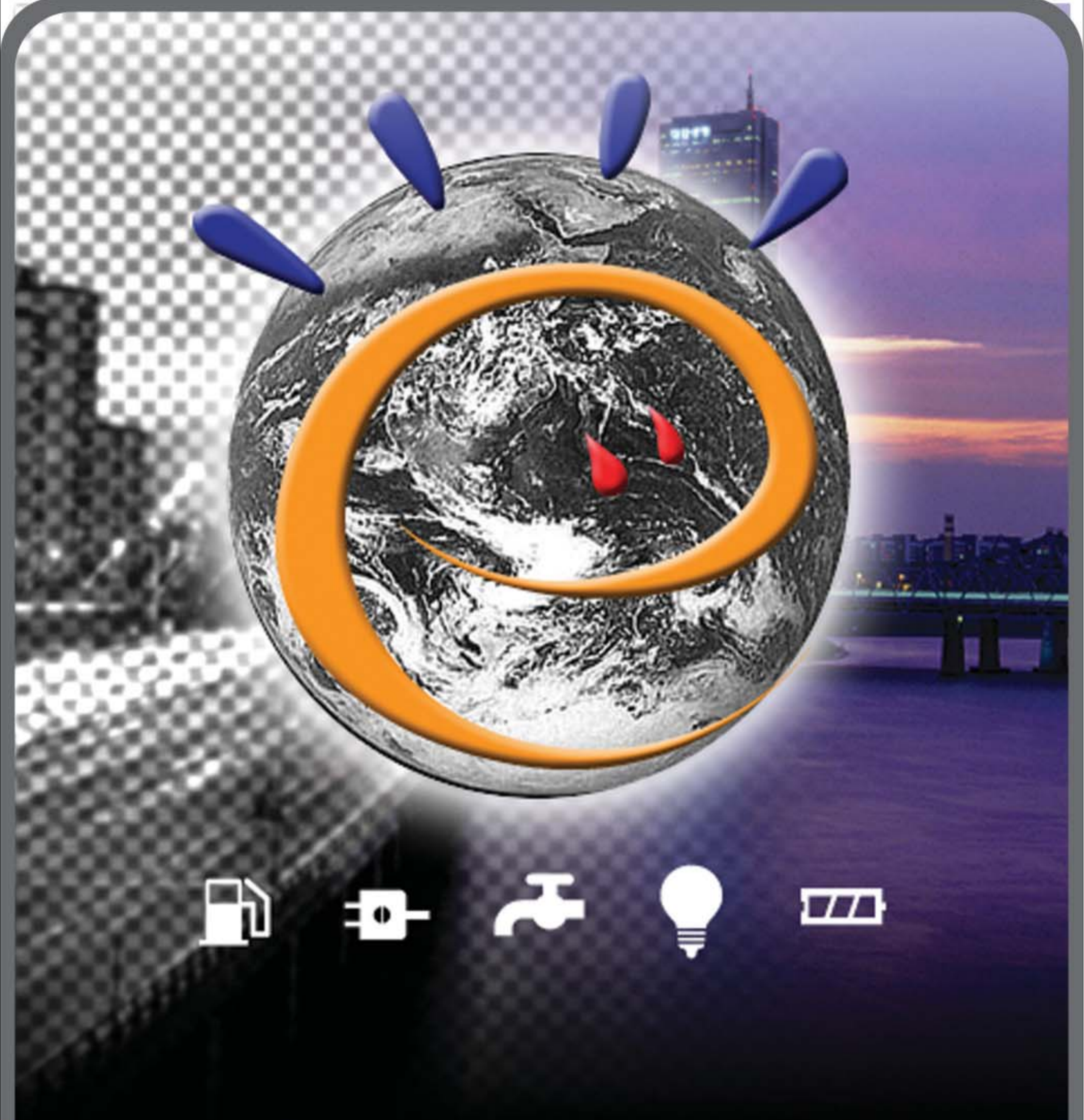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details: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내선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팩스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비산업기술진흥재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S 주식회사 대성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osan Forestry Cooperative

 KR 한국농어촌공사 금산지사

금산공판장G마트